

제6절 나곡2리(羅谷二里)[속명:곡리(谷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매봉산 지맥(地脈)이 동쪽으로 뻗어 통소봉을 이루고, 비석들과 석골천이 흐르며, 서쪽은 골방산이 있고 그 옆에 범호산이 있다. 남쪽은 나곡5리와 만호곡(萬戶谷)이 있고, 남서쪽으로 부구2리가 있으며, 북쪽은 옥저봉이 있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620년경에 손씨(孫氏)라는 선비가 마을을 처음 개척할 때 다래덩굴을 치운 뒤에 생긴 마을이 골(谷)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어 곡리(谷里)라 하였다.

3. 가구 분포

총 6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담양 전씨(潭陽田氏)와 인동 장씨(仁同張氏), 경주 김씨(慶州金氏), 평해 황씨(平海黃氏)가 주종을 이룬다.

4. 마을의 특징

1) 골방산

산(山)의 모양이 골뱅이와 흡사하다 하여 골방산이라 하였다. 골방산은 나곡1리 소재 ‘골방나기짬’과 연결되어 있어 ‘큰 부자가 나가나 이름난 인물이 난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마을 사람들은 골방산을 매우 중요한 산으로 여기고 있다.

2) 비석들

김현령(金縣令)과 황진규(黃鎭圭) 현령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다. 비석들은 조선 조 말 현령 김00와 현령 황진규가 당시 천석지기 부자로 이름난 장부자(張富者) 집을 다녀오면서 마을 어귀에 공적비를 세운 데서 유래한다. 현재 김 현령의 공적비는 소실되었으며, 황 현령의 영세불망비가 일부 훼손된 채 남아있다. 황진규의 불망비 기록으로 보아 1872년[동치 11년, 임신년]에 세운 것으로 확인된다. 비석에는 “一片沙石 萬古平洋”이라 새겨져 있다.

3) 음지마

마을의 북쪽에 형성된 음지마에는 서당이 1개소 있었으며, 한국 근대사의 뛰어난 경제사 학자이자, 민족주의자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창해(滄海) 최익한(崔益翰)[1897~?]선생의 생가가 있다.

제7절 나곡3리(羅谷三里)[속명: 나실(羅室)]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 동북으로는 매봉산 지맥(地脈)이 가지령(加之嶺)을 이루고 그 산(山) 끝에 봉화산(烽火山)이 있다. 서쪽은 옥적곡산(玉笛谷山) 방치골이 있으며, 남쪽은 망제산(望祭山) 늪들과 담위들이 있고, 북쪽은 갈령재(加之嶺)의 백골산 아래에 나곡천(羅谷川) 하류에 원(院) 터인 강변(江邊)이 있다. 나곡해수욕장이 조성되어 있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최근에 원룸 형태의 연립주택이 다수 조성되어 있다.

2. 마을의 역사

1450년경에 한양 조씨(漢陽趙氏)라는 선비가 마을을 개척(開拓)하고 보니 마을 형태가 선녀가 내려와서 춤추는 비단옷과 같다 하여 선라(仙羅)라 하였다. 그 후 남쪽에 있는 평야(平野)를 개척한 후 방(房)안에 아름다운 비단천을 연상케 한다고 하여 나실(羅室)이라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나곡리(羅谷里)라 하였다. ‘박씨 가문에 조씨 터전’이라는 향언으로 미루어 마을을 처음 개척한 성씨는 한양 조씨로 추정되며, 밀양 박씨가 세거를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3. 가구 분포

총 78세대가 거주하며 밀양 박씨(密陽朴氏)와 삼척 김씨(三陟金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한양 조씨(漢陽趙氏), 예천 임씨(醴泉林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